

CEO 동정

### 전라선 고속화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0일 남원역 구내 전라선 고속화 현장 및 남원역 신호계전기실 등 호남 본부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계획과 설계·시공 등 전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국민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하였다.

### 호남본부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0일 호남본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임직원 전체가 합심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였듯이, 금년에도 '임사이구(臨事而懼)'처럼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 공단, 금년 왕십리~선릉, 오이도~송도 등 9개 사업 개통

- '11년보다 14.4% 증가한 6.5조원, 상반기에 3조 7028억원 집행 -

공단은 금년 5월에 열리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월 까지 전라선을 최고시속 230km까지 고속화하고, 수인선 송도~오이도, 분당선 중 왕십리~선릉과 기흥~방죽, 경의선 공덕~DMC, 중앙선 용문~서원주 복선전철 등 9개 사업을 개통할 예정이다.

\*오이도~송도(13.1km, 6월), 왕십리~선릉(6.8km, 9월), 기흥~방죽(7.7km, 12월), 경의선 공덕~DMC(6.1km, 12월), 용문~서원주(28.0km, 9월) 영동선 철도아설(17.8km, 6월), 동순천~광양(9.2km, 6월) 마산~진주(53.3km, 12월), 신탄리~철원(5.6km, 12월)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지역 개발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3월부터 순차 발주하고, 인천공항에서 평창을 연결(인천공항~수색~용산~청량리~서원주~진부, 235.9km)하기 위해 공항철도와 경의선 연결사업도 본격 추진하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홍성~송산) 등 9개 사업을 신규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원주~강릉(113.71km, 3~10월), 익산~대야(11.2km, 9월), 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27.96km, 2월), 포항영일신항인입철도(11.2km, 7월), 울산신항인입철도(7.9km, 7월), 서해선복선전철(90.2km, 8월~12월), 부산~울산복선전철(72.1km, 12월), 수원~인천복선전철(52.8km, 3월), 신안산선 송산차량기지터전(5월)

특히 수도권고속철도는 공사를 본격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는 공정 59%를 달성하며, 고속철도 차량 22편성(220량)을 전액 국고로 계약하여 '15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을 위한 재원은 국고 4조 7305억원과 공단이 1조 8178억 원을 자체 조달하여 지난해보다 14.4%가 증가한 6조 5483억원을 집행하고 이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

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누적인 부채(17조 6천억원)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오만 복선전철사업(1,061km), 카타르 고속철도(280km) 사업관리 용역과 아제르바이잔(503km) 신호개량 사업 등 해외사업 수주에 집중하여 중국사업에 편중되어 있던 해외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흥대입구역, 공덕역, 서강역 등 수도권역역세권 개발사업과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역 등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김광재 이사장은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는 국고(40~50%)와 철도공단 발행채권(60~50%)으로 건설하고, 코레일은 한푼의 투자도 않고 심지어 운행할 차량조차 사지 않는데도, 코레일이 계속 운행하게 되는 현재의 KTX도 마치 민간으로 팔아넘겨 특혜를 주는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전혀 개선치 않으려 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운영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윤임인하와 최고의 서비스를 유도하여 다양한 편익과 선택권을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남는 수익을 선로사용료로 최대한 회수하여 건설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세금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 '녹색철도대학원' 개설 협약

- 공단, 우송대와 공동으로 사내 대학원 운영하기로 -

공단은 지난 19일 글로벌 철도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와 공동으로 사내에 '녹색철도대학원'을 개설,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녹색철도대학원은 공단 임직원 및 철도관련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철도공단은 학생선발, 강의장소 및 강사진 제공을 맡고, 우송대는 강의 및 학사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공단은 '글로벌 수준의 철도기술역량 확보'와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내대학원을 통해 2020년까지 석사 424명, 박사 10명 수준의 핵심인재확보를 높일 계획이다.

금년도 녹색철도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5명 내외로, 1월 중에 학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강의가 시작되며, 수료하면 철도공학석사 학위가 수여되며, 장차 박사과정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20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본격 착수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4개 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완료 -

신규 철도사업 착수의 첫 단추인 '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40.7km), 여주~원주 복선전철(21.9km),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56.1km) 및 교외선(능곡~의정부) 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2월 최종 선정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4월 고시)에 전반기('11~'15년) 착수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고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동서횡단철도 구축, 강원권과 경기권의 직결 및 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경부선 선로용량 부족 해소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철도서비스가 기대된다.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처장 노병국)는 KDI 주관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시 예비타당성 대상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였다.

향후 기획재정부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이 계획된 기한 내('12.4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7월) 적기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운행계획, 사업비 산출 등 KDI 요구자료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수시로 KDI 연구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타당성(AHP)0.5)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철도사업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시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 논란으로 인해 철도 신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KD(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예비타당성조사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개선으로 이용자 이동편의 증진

-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 설치기준 및 연계교통체계 마련 -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처장 노병국)는 철도건설 사업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철도역 설치기준 및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녹색사업전략처는 현재 건설 및 운영 중인 26개 철도역에 대해 지난해 11월 연계교통실태조사 시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에 철도역 설치기준 및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공중인 역(20개)에 대하여는 개통시기 및 매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계교통시설을 우선 개선토록하고 설계/계획중인 역에 대하여는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철도 이용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역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역 입지 가능한 도시에 계획 ▲평면이동 및 동선단축 최우선 고려 ▲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 집중화 ▲편의시설(캐노피, 엘리) 고려 ▲적정규모의 주차장 고려 ▲연계교통 정보시설 적재 배치 ▲회전교차로 도입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역의 접근성 및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철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철도역에 접근하여 철

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역 이용객 증가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혁신본부 임현민 기자)

〈참고〉 개선대상 시공중 철도역(20개)

사업별	역사명	역사 개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선하2층, 면적: 23,224㎡, 여객수요: 3,271인/1일
	정읍역	선상2층, 면적: 28,988㎡, 여객수요: 4,024인/1일
경춘선	목현역	지상2층, 면적: 1,098㎡, 여객수요: 6,573인/1일
	별내역	선하1층, 면적: 2,070㎡, 여객수요: 27,632인/1일
	신내역	선하2층, 면적: 1,818㎡, 여객수요: 24,761인/1일
덕소~원주 복선전철	서원주역	지상2층, 면적: 1,706㎡, 여객수요: 509인/1일
	양동역	지상2층, 면적: 1,488㎡, 여객수요: 333인/1일
경전선	반성역	선하1층, 면적: 1,393㎡, 여객수요: 237인/1일
	진주역	지상2층, 면적: 2,874㎡, 여객수요: 1,587인/1일
	함안역	선하1층, 면적: 2,493㎡, 여객수요: 4,353인/1일
영동선	군북역	선하1층, 면적: 1,764㎡, 여객수요: 1,813인/1일
	동백산역	지상3층, 면적: 1,492㎡, 여객수요: 576인/1일
	월곶역	선하2층, 면적: 2,457㎡, 여객수요: 43,800인/1일
	소래역	선하3층, 면적: 3,261㎡, 여객수요: 69,963인/1일
	논현택지역	선하3층, 면적: 4,565㎡, 여객수요: 42,698인/1일
수원~인천 복선전철	논현역	선하3층, 면적: 7,305㎡, 여객수요: 53,596인/1일
	남동역	선하2층, 면적: 5,580㎡, 여객수요: 37,828인/1일
	송기역	선하2층, 면적: 8,354㎡, 여객수요: 73,398인/1일
	연수역	선상3층, 면적: 2,568㎡, 여객수요: 63,898인/1일
송도역	지상2층, 면적: 2,997㎡, 여객수요: 83,422인/1일	